



## “가정의 달 5월, 아시아 문화예술 즐겨요”

ACC재단, 문화예술 프로그램 내달 4~5일 축제 ‘하우펀 10’ 개최 15개국 참여 ‘아시아컬처마켓’ 야외 재즈공연 ‘빅도어콘서트’ ‘파크먼트 키즈 라운지’ 오픈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아시아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어린이가족문화축제 ‘HOWFUN’

ACC재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과 5일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10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하우펀은 ‘도시 따라 지구 한바퀴’를 주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연, 체험 등 50여종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하우펀은 어린이문화원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관찰자 △도시탐험가 △도시창조자 등 세 부 주제에 따른 문화예술체험이 진행된다. 또 8명의 작가와 협력을 통해 놀이와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전시 체험이 이뤄진다.

올해 행사에는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우즈베

키스탄 등 4개국 5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국립어린이박물관, 광주교통공사 등 국내 16개 기관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하우펀 10주년을 맞아 핀란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센터’가 1970년대부터 수집한 전 세계 55개국 어린이들의 회화 작품 100점을 어린이문화원 미디어월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 ●아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2024 아시아 컬처마켓

5월 4일부터 6일까지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아시아컬처마켓’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15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34개 부스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꽃화관 꾸미기, 중국 전통부채 만들기, 일본 물풍선 낚시, 아시아의 타악기 클래스 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솜사, 베트남 생코코넛 음료 등 아시아의 특색있는 먹거리도 만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을 위한 사자놀이 공연, 중국 변검, 베트남 띠마오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 ●재즈·뮤지컬·창극·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 대중화 공연

5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화 공연들이 잇따라 마련된다.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ACC 예술극장 극장1 야외무대에서는 돛자리를 깔고 앉아 재즈 공연을 관람하는 ‘2024 ACC 빅도어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광주 출신 뮤지션 위주로 구성된 ‘G.J.Unity (Groove Jazz Unity)’, 이 시대 문제적인 재즈 연주자라 불리는 ‘김오키 새턴발라드’, 실험적 사운드로 탄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재즈 대표주자 ‘윤석철트리오’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의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5일과 26일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는 ‘넥스트 투 노벨’ 공연이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어린이극장에서는 프랑스 고전명화와 밴드 음악이 어우러진 시네마 음악극 ‘빨간 풍선’ 공연이 열린다. 또 5월 29일 오전 11시 ACC 브런치콘서트로 ‘테너 존노,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의 한국 가곡 특집’이 진행되며, 5월 30일과 31일은 인기 창극배우 김준수와 유태평양, 서의철, 고준석 등 총 11명의 남배우가 출연하는 남성창극 ‘살로메’가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서 선보인다.

### ●‘들락기즈’ 어린이상품 팝업스토어 운영

오는 5월부터 ‘들락(DLAC) 키즈’ 어린이 상품

을 선보이는 ‘어린이 팝업스토어’를 ACC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운영한다. ‘들락(DLAC) 키즈’는 그 동안 ACC 문화상품점에서 선보였던 ‘DLAC 들락’의 어린이 상품 브랜드로 ‘어린이 팝업스토어’에서 어린이문화원 공간개편 전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 팝업스토어는 올해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하며 ‘즐겁게 들락날락, 들락기즈’라는 슬로건에 맞춰 아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 어린이 도서, 어린이문화원 콘텐츠 연계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날을 앞둔 오는 5월 1일 어린이문화원 로비에는 식음시설과 캐릭터 플래그십스토어가 결합한 ‘파크먼트 키즈 라운지’가 새롭게 오픈한다. ‘파크먼트 키즈 라운지’는 돈가스, 캘리포니아를, 음료 등의 메뉴로 구성된 캐주얼다이닝 ‘효정당’과 인기 캐릭터인 ‘캐치!티니핑’ 스토어로 구성된다.

김선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아시아 문화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예술, 놀이 등을 즐기며 가정의 소중한 의미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광주가톨릭박물관 상설전시 개편 ‘이 땅에 빛을’

‘신앙의 빛’ 등 6개 섹션 순교자들의 발자취 살펴

광주가톨릭박물관은 2024 상설전시실을 개편, ‘이 땅에 빛을:함께 걷는 빛고을’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교구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살핀다.

전시는 △신앙의 빛 △복음의 빛 △사명의 빛 △진리의 빛 △정의의 빛 △희망의 빛 등 6개 섹션으로 나뉜다. ‘신앙의 빛’에서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열이 담긴 교구 내 순교지를 그려낸다.

‘복음의 빛’에서는 교구 첫 본당인 목포 본당(현 산정동 본당)을 시작으로 1937년 광주지목구 설정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구의 발자취를 그려낸다.

‘사명의 빛’에서는 교구의 복음화를 위해 열정과 헌신의 삶으로 함께한 선교·수도회의 활동을 담았다.

특히 ‘진리의 빛’에서는 ‘하느님의 종 77위’ 중 광주대교구 순교자 다섯 분을 기억한다. 한국 전쟁기에 순교하신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세 분의 신부님과 교구 신학생 두 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의의 빛’에서는 지역민과 세상의 아



광주가톨릭박물관 상설전시 ‘이 땅에 빛을’.

픔에 함께 해온 교구의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희망의 빛’을 통해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광주가톨릭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희망을 품으며 지켜왔던 ‘신앙’을 느끼면서 신앙의 의미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가톨릭박물관 전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정기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목요일 밤마다 펼쳐지는 클래식 향연

광주문화재단 올해 첫 목요콘서트 내달 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관악팀 ‘티오피 콘서트 밴드’ 출연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첫 목요콘서트 무대를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첫 목요콘서트 공연은 △TOP concert band(티오피 콘서트 밴드)의 ‘바람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윈드오케스트라 앙상블이다.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와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화려하고 웅장한 연주를 선보인다.

티오피 콘서트 밴드는 관악기 위주의 공연팀으로 지난 2017년 창단해 꾸준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뛰어난 실력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이번 티오피 콘서트 밴드 출연진은 지휘 및 해설에 김정태, 플룻 조효주·최형운, 클라리넷 박효인·강태호·권여경, 알토색소폰 윤주승·유지은, 테너색소폰 이경호, 호른 김옥길·홍석원, 트럼펫 김다빈·김우용, 트롬본 고재현·김성찬, 튜바 방은혜, 타악기 김기수·권도현·김누리가 함께한다.

5월 9일 목요콘서트 2회차 무대에는 △루체양상블의 ‘밀롱가(Milonga) 열정과



오는 5월 2일 광주문화재단 목요콘서트 첫 무대에서는 TOP concert band(티오피 콘서트 밴드).

광주문화재단 제공

열정 사이’ 공연이 예정돼 있다. 탱고의 가장 피아졸라의 가장 유명한 곡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가을-겨울-봄-여름 순)과 ‘드보르작 서거 120년 기념’ 극도의 서정성과 체코 민속음악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적절히 배합한 드보르작 명곡 ‘피아노 5중주 2번’ 등 고품격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단체인 루체양상블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빛’이라는 뜻으로, 모든 색을 담고 있는 빛에 빚어 다양한 색채의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22 Global Dream Music Concour(글로벌 드림 뮤직 콩쿠르) 실내악 부문 최우수상 수상 및 다수의 공연을 통해 입

지를 다졌다. 루체양상블 공연팀의 출연진은 바이올린 박지현·이예린, 비올라 양은지, 첼로 허연희, 피아노 한원희, 해설자 이노율이 함께할 예정이다.

목요콘서트 1, 2회차 관람 예매는 5월 3일부터 전화 예약으로 진행되며, 공연 입장료는 유료(객석 1인당 5,000원)로 운영, 수익금은 공연팀에 전달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https://www.gjcf.or.kr>) 및 빛고을시민문화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Dear My Gwangju)’(<https://dmgj.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